

## 2018 학년도 제 4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- 회의일시 : 2018년 1월 22일(월) 14:00~15:30
- 회의장소 : 본관 2층 회의실
- 참석위원 : 이종진 (위원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염영섭 (학교법인 상임이사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재환 (학생문화처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시남 (기획예산팀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효영 (대학원 총학생회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의빈 (학부 부총학생회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평강 (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창배 (외부전문가위원)
- 불참위원 : 김현정 (주간MBA 원우회장)
- 배    석 : 이도행 (법인사무처 계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장훈 (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)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남진 (간사/ 기획예산팀 계장)

### 1. 2018학년도 본예산 관련 심사·의결 진행

배석한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아래와 같이 2017학년도 추가경정예산, 2018학년도 본예산,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함

- 아 래 -

#### ① 2017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 (교비회계 : 등록금 + 비등록금 회계)(단위: 백만)

구분	본예산(A)	추경증감(B)	추경예산(A+B)	본예산 대비 증감률
교비회계	186,277	15,223	201,500	8.17%

#### ② 2018학년도 본예산 (단위: 백만)

구분	등록금	비등록금	계
세입	103,010	75,755	178,765
세출	103,010	75,755	178,765

\* 세입 : 등록금, 수강료, 전입 및 기부수입, 교육부대수입, 교육외수입, 자산/부채, 기본금, 전기이월자금

\* 세출 : 보수, 관리운영비, 연구학생경비, 교육외비용, 진출금, 예비비, 자산/부채

### ③ 잉여금 처리 원칙

#### 가. 잉여금의 정의

-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
-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에 한함.

#### 나. 잉여금의 처리 원칙(안)

-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/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. 기타이월의 경우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.
- 일부 장학금 등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- 등록금회계의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,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.

## 2. 위원발언 및 질의응답

### 원재환(학생문화처장)

철우 만레사 인성교육원은 공사비 지급이 끝나면 송사가 끝나고 인수가 되는지.

### 김장훈(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)

3심까지 진행될지 불확실하지만, 우선은 그렇다고 보면 됨.

### 원재환(학생문화처장)

차년도 예산에 엠마오관 누수공사가 반영이 안된건지.

### 김장훈(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)

기금 목적변경이 선행돼야 하고, 그에 따른 추경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추경이 불가능하므로 차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임.

### 김평강(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)

엠마오관 뿐만 아니라 농구장도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함. 매년 부상자가 나오는 등 코트가 안정적이지 않음. 이런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어떻게 있는지.

### 원재환(학생문화처장)

학생처에서 학생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학생 의견을 받고 있음. 추가적인 내용은 학생문화처에 방문해서 논의했으면 함.

### 김창배(외부전문가위원)

2016년부터 기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었음.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, 학교 발전을 위한 플랜이 없는데 기금이 왜 늘어나는지 의문임. 그런면에서 보면 결국은 학교가 어렵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음. 긴축경영을 한 것이 원인일수도 있겠지만.

### 김장훈(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)

기금이 늘어나고 있지만, 전부 목적이 정해진 것임. 학교 운영에 사용할 수 없음. 특정목적기

금도 각 단위별 기금으로 구성되어있음. 적립금 규정을 개정시행 하면서 단위별 기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.

#### **김창배(외부전문가위원)**

제 질문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, 자금이 모자라면 특정목적기금에서 인출해서 써야되는데 올해도 기금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. 예를 들어 기부금이 증가한다든가 하는 원인이 있어야 함.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, 기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 하다는걸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임.

#### **박시남(기획예산팀장)**

2016년에는 기금 보전을 위해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충당한 것이 크게 기여했음. 특정목적기금에서도 단위별 수지차액 적립이 있을 수 있고, 그런 기금들은 목적이 정해져있어 학교운영에 사용할 수 없음. 작년 적자 기금 보전을 위해 사용한 기금들을 복구시키는 과정이라 기금이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함.

#### **김창배(외부전문가위원)**

질문의 요지는,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마치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임. 연구, 건축, 장학은 기부자들이 있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원인이 불분명 하다는 것임.

#### **이도행(법인사무처 법무감사팀 계장)**

기금 증가는 잉여자금 혹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데, 일반회계에서는 적자를 보는데 기금회계에서는 흑자일 수 있음.

#### **김창배(외부전문가위원)**

대차 밸런스가 맞아야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움.

#### **이종진(위원장)**

지금까지 몇년간의 적자예산을 벗어나서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함.

#### **김장훈(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)**

2018학년도까지는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, 그 이후에는 수입 감소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임.

#### **이도행(법인사무처 법무감사팀 계장)**

일반회계가 적잔데 왜 기금이 증가하는지는 결산에서 세부적으로 보여주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 예산단계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.

#### **박시남(기획예산팀장)**

예산은 이미 예상치를 바탕으로 편성된 것인데, 거기에 추가적인 예상과 가정이 들어갈 경우

정확도가 낮아지게 됨.

#### 원재환(학생문화처장)

학교회계의 경우 기업회계와 많이 달라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. 기회가 되면 일반회계와 기금회계의 현금흐름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. 일반 기업회계 만 보셨던 분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.

#### 김평강(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)

학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알고 있고,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 등은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.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여러 학교가 같이 국가적 지원에 대해 교육부에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. 입학금 감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확정이 된건지.

#### 이종진(위원장)

아직 확정 안됐음.

#### 김평강(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)

예비비 편성은 어떻게 한건지.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다소 적은게 아닌지.

#### 이종진(위원장)

금년에 예비비도 많이 쓰진 않았음. 차년도 미라클을 위한 준비에 조금 쓰고, 예비비의 절반도 안 쓴 상태임.

#### 염영섭 (학교법인 상임이사)

기획처에 따르면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되면 교육부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음. 예비비를 많이 쓰면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함.

#### 김창배(외부전문가위원)

예비비를 더 많이 잡을 수는 없는지 궁금함. 작년에는 신임총장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던 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음. 예비비가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5억이면 될 것 같다고도 생각함.

#### 이종진(위원장)

특히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비등락금 예비비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음. 긴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흑자재정을 위한 운영방안을 법인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. 앞으로 사립학교가 살 길은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. 대학은 수익사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.

#### 원재환(학생문화처장)

인건비와 국고대응 질문하고자 함. 인건비를 동결했다고 하는데 현재 임단협이 진행중인지.

**박시남(기획예산팀장)**

아직 안하고있음.

**이종진(위원장)**

퇴직기금의 적립도 필요한 상황이지만, 결산 흑자폭이 커야 가능한 희망사항임.

**김창배(외부전문가위원)**

교직원의 세대교체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**원재환(학생문화처장)**

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국고 교비대응은 언제까지인지.

**김장훈(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)**

대략 3년 남았음. 차년도에 국고대응 교비 규모를 줄이려고 했는데, 국고사업비가 삭감될 수 있다고 하여 줄이지는 못했음.

**원재환(학생문화처장)**

학생문화처로 국고대응 요청이 많이옴. 특히 취업지원 등 학생지원 분야에 많이 있는데, 재정 상황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고 있음. 인건비와 국고대응예산 지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림.

**김평강(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)**

최저임금이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니 만큼 국가에도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함. 학생회로서 학생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비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듦.

**박의빈(학부 부총학생회장)**

지정사업 관련해서 신임총장 프로젝트인 미라클에 학생들 관심이 많음. 본예산에 반영했는지.

**이종진(위원장)**

미라클은 전액 기부금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함. 기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배정하지 않음. 학생들이 요청한 화장실 개선도 기부금 등 재원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.

**김평강(학부 총학생회 연대국장)**

안전을 위해 화장실 비상벨은 시급하다고 판단됨.

**이종진(위원장)**

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함.

### 3. 결정사항

- 2018학년도 예산(안)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.
- 잉여금 처리 원칙(안)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.

2018. 2. 1

위의 사실을 확인함

위원장 : 이종진 기획처장



(교직원 위원)

(학생위원)

(외부전문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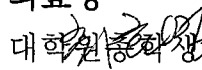
염영섭

법인 상임이사



최효영

대학원총학생회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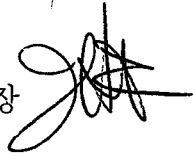
김창배

파투아 부회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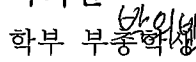
원재환

학생문화처장



박의빈

학부 부총학생회장



박시남

기획예산팀장



김평강

총학생회 연대국장

